



2023년 12월 17일(제1171호) 대림 제3주일(지신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열등감 없는 세례자 요한”

[전지적 참견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했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군부대에서 장병들에게 강연을 하던 도중 이영자 씨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거북이는 토끼랑 질 게 뻔한 달리기 경기를 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답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자 씨는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열등감, 즉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생선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자기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면 어쩌나 하는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중 누군가가 코로 냄새 맡는 시늉만 해도 자기 몸에서 비린내가 나서 그런 줄 알고 괜히 뜨끔했다고 합니다. 늘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냄새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많았다는 것이지요.

본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영자 씨는 강연 초반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자는 토끼의 제안에 기꺼이 응답했던 것은 콤플렉스, 즉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은 달리기 속도가 느리다는 열등감이 없으니까 토끼가 얼마나 앞서 달려가든, 그저 달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 결과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을 합니다. 반면 자신이 ‘비교열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에게는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밖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느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역사 안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 뒤에 오실 구세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가져다주실 구원이 어떤 모습일지를 알게 되리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중요한 소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소명에 최선을 다할 때, 참된 행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손강윤(모세) 신부
태평(육군 제28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61,1-27.10-11

회 답 송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제 2 독 시

1테살 5,16-2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요한 1,6-8.19-28

영 성 제 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열한 번째 시집

지금 임금의 고조부는 대신들의 당과 싸움의 와중에서 반란을 모의한 역적으로 몰려 그의 부친이 살아 있을 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왕자를 처형하는 주동자들이었던 대신들의 후손들이 지금 조정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무죄한 왕자를 불의하게 사형에 처하였다는 유죄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추존을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존의 문제를 제일 먼저 주장한 자는 귀양을 갔고, 그 추존을 찬동한 그 나머지 천여 명은 벼슬 자리를 잃어버리고 형편없이 처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들은 이러한 일이나 이와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헐뜯는 일로 날을 보냅니다. 또 아무 쓸 데도 없는 무의미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최근 몇 달 전에 한 가지 법을 정하였는데, 교자(轎子)를 타고 다니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법률을 어긴 탓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귀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 법이 흐지부지되고, 몇 달 전부터 누구든지 교자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신부님은 이 따위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정부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또 이런 못한 사람들에게 통치되는 불쌍한 백성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받은 마지막 서한에서 저의 부모님, 즉 최 프란치스코와 이 마리아의 순교 행적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모님들의 체포, 투옥, 고문, 문초, 순교 등에 관한 모든 경위를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증인들을 두 명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미 신부님께 보고 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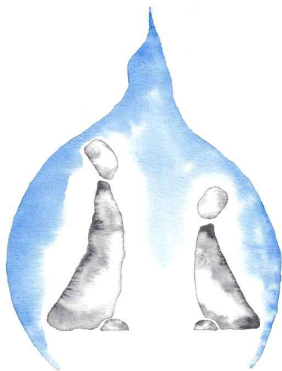
저의 아버지 프란치스코가 죽었을 당시에 감옥에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체포된 사람 중 신자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어서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내 자리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사랑받는 그 자리,
사랑하는 그 자리,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이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나의 자리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의지의 성모



본 그림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성모님과 그 옆에 두 손을 모으고 이 둘을 바라보는 아기 세례자 요한을 그린 성화이다.

이 그림은 딱히 어려운 도상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간에 흐르는 부드러움과 따뜻함, 넘치는 애정과 친밀함이 잘 드러나, 이 부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성화이다.

라파엘로
1513년 ~ 1514년 제작
패널 위 유화
71 x 71cm
피렌체, 피티 궁 / 이탈리아

동그란 그림은 대부분 결혼하는 여인에게 선물로 주는 그림들이기도 하였는데,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역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 전체 인물들의 윤곽 및 자세 모두 부드러운 곡선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성모님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애정과 기도로 이어진 세례자 요한까지, 이 그림은 깊고 또 겸손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대림 제3주일: 상요셉(부시교) 농진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
- 때: 12월 17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때·곳: 12월 21일(목) 16:30, 서소문 성지
- 국장회의
- 때·곳: 12월 1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